기획논문 「정부학연구」 제15권 제1호(2009): 155~187

원고투고일: 2009. 3. 15
원고수정일: 2009. 3. 29
게재확정일: 2009. 4. 10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임도빈**

이 글은 최근 행정학계에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질적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있는 소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흔히 질적인 연구라고 일컬어지는 것중 많은 부분이 양적인 질적 연구로서 협의의 질적인 연구와는 구분됨을 주장한다. 아울러 진정한 질적인 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즉 질적 연구가 가져야 할 요건, 질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 질적인 연구의 구체적인 유형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에 대해 얻은 자료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가공을 하느냐의 여부와 논문의 핵심 주장부분을 통계적 유의성 검증에 의존하느냐의 여부가 질적 연구인가 아닌가의 판단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계량적 실증적 연구에서부터 완전한 질적인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유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질적인 연구가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질적인 연구란 평가하는 기준이 양적인 연구의 평가기준과는 다름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질적인 연구는 무엇보다도 연구윤리의 확보가 치명적임을 주장한다.

주제어: 질적 연구, 연구기준, 연구방법론

Ⅰ. 질적 연구가 왜 중요한가?

질적연구방법이란 빈도(frequency) 등 수치적 방법에 의한 이외의 방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재코딩하고,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Van Maanen, J. 1979). 최근 행정학에서 질적 연구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 2008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행한 특강자료를 보완한 것임.

** I.E.P. de Paris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 조직론, 시간연구이다(tobin@snu.ac.kr).

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양적 연구가 행정문제에 대한 처방과 예측에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중에서 행정학은 처방을 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는 학문이다. 이때 흔히 사용되는 계량적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변수를 끄집어내 통계적 검증을 한다. 여기에는 같은 상황이면(조건이 같다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독특(unique)한 것이며, 이는 기존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때론 전혀 다른 발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아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무원들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매일매일 땜질식으로 처방하고 있고 따라서 행정학 지식이 문제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까지 한다(임도빈, 2009).

한국의 행정학 및 정책학의 연구경향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권경득, 2006; 박흥식, 2006). 이에 따라 학생들의 질적 연구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혼란스럽고 단순히 계량연구의 반대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밀턴 프리드만(Friedman, M,1966:4)이 제기한 대로, 실증연구는 원칙적으로 규범적 연구와는 다른 연구이므로, 만약 어떤 질적 연구가 계량 연구가 아니면서 동시에 규범적 연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실제 일어난 일 또는 행위에 대한 연구일 수 있으므로 경험적, 실증적 연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적인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가 경험적 실증적 연구가 아닐 것이라는 편견은 일종의 과학주의의 미신이다. 다만, 질적 연구의 중대한 특성으로 연구자와 사물 간에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토대로(윤견수, 2005:1) 연구자 저마다의 사회적 현실(multiple realities)의 형성(구성)이 가능하다. 그 과정은 연구자가 사물을 이해해가는 의미해석(sensemaking)과정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가치개입적일 수 있으며, 결국은 "실증적(positive)"이라는 용어는 '질적 연구다운' 것과는 어느 정도는 상존하기 곤란한 것이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적 연구의 다양하고 다중적인 측면을 양적 연구와 비교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질적 연구전략과 좋은 질적 연구가 되기 위한 조건 및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Ⅱ. 기존 질적 연구들의 맥락적 이해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라는 용어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Strauss and Corbin, 1998:11). 개념 혼란이 학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질적 연구자들에게 조차도 꼭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것인 '질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구분에 대해서는 한국행정학계에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고 입장이 분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매우 난해한 질문이 될 수 있겠지만, 질적 연구에서 '질적'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 무엇이 '질적'인 것인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

통상적으로 불리는 질적 연구와 '질적 연구다운' 질적 연구 간에는 사실 큰 간극이 있다. 윤견수(2005:1)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행정학보에 등장했던 많은 질적 논문들이 양적 방법론의 연구 절차를 따르고 있는 점과, '질적인 것'이 갖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질적 논문을 표방하나 양적 절차를 따르는 질적 연구, 단순한 연구기법상의 특질로서 수치 데이터가 아닌, 정성적 자료를 취하는 질적 연구를 '양적인 질적 연구'로 통칭할 것이다. 이에 반해 '질적인 질적 연구'란, 전자에 비해 패러다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1)]

질적 연구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비수학적(non-mathematical) 분석, 비수치적(non-numeric) 자료, 비통계적(non-statistical) 방법을 차용(Strauss & Corbin, 1998: 10-12) 하는 연구를 질적 연구라고 알고 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질적인 것이란 주관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심지어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계량적 방법이나 사례연구를 하지 않은 것이란 의미에서 이론적인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 완벽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이나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1) 이때는 비단 방법론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데, 자세한 것은 Ⅲ장의 Guba & Lincoln(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질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 즉, 가치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관찰이란 것이 이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찰이 현실에 대해 진실을 말해줄 것이며 과학적 주장은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Johnstone, 2000). Cameron 등(1992)은 관찰과 현실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이른바 상대주의(relativism)로서 관찰만이 아니라 현실 또는 이론에 의존하므로, 세상은 개인들에 따라 차이가 나며 따라서 기술(describe)할 수 있는 단일한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례에서 관찰과 현실간의 상호작용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반면 객관적 현실주의(realism)는 관찰은 이론에 기반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들은 서로 다르며 잘못 들릴 수도 있지만 같은 발언을 듣는 두 사람의 경험은 어느 정도 같다고 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Johnstone, 2000).

한편, 어떤 이들은 접근방법과 패러다임 등도 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접근방법이란 어떤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특징은 특정 학문분과에 있어서 "문제와 자료"의 선정기준이 된다. 행정학에서 사용하는 접근방법들로는 생태론, 구조론, 제도론, 행태론, 행위론, 의사결정론,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론, 거버넌스, 권력론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패러다임은 특정 학문분과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서, 대개 그 분야의 위대한 업적을 기초로 형성된다. 모든 과학 활동의 목표는 현상의 특징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사실 양적, 질적 모든 과학 활동에 공통되는 내용이다.

이렇듯, 질적 연구란 매우 다양하고 다중(multiplicity)적인 방법론을 포괄하는 것으로 '질적'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 질적 연구방법의 공통분모를 추출해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비교적 덜 알려진 영역에서의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연구대상의 사회적 맥락에 큰 관심을 갖는다. 설명방법에 있어서도

현상의 피상적인 유형, 추세나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본질적인' 형태의 분석과 설명을 보다 강조한다(제니퍼 메이슨, 1999). 양적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양적 연구와 어떻게 다른가?

일반적으로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는 달리 '객관적 연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객관적이라는 말은 사실(fact)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Simon(1958)은 행정현상을 가치(values)와 사실(facts)로 분리하여 후자에만 국한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사회과학에서 통상적으로 간주하는 '객관성'[2]의 의미는 첫째, 경험적 사실인가 여부, 둘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가의 여부, 셋째, 신뢰성 있는 사실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인식하거나 느끼는가 하는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 현상을 동일하게 보고 느낀다는 이유자체만으로 그 현상을 사실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과거 천동설이 지배적인 시대에 사람들은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움직인 것으로 경험적으로 느꼈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올바른 사실이었다. 신뢰성이 있는 사실이란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실험을 수행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객관성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양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분석단위를 동일하게 한 후 연구할 속성에 수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 분석에 통계분석기법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수치의 통계적 결과에 의해 제시된 "사실(facts)"를 추구하는 것(남궁근, 2004)과는 다르다. 즉, 연구대상이 특정 사회 환경에 놓여 있는 행위자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제(socially constructed reality)를 추구한다(Meyer and Rowan, 1977; Granovetter, 1985; Weick, 1993). 행위자나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객관성 [客觀性]은 "1. 주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대상 자체에 속하여 있는 성질, 2.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로 정의된다.

연구자의 인식(perception)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상술한 객관성의 기준에서 볼 때 문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차이점을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의 내용도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극단치 내지 이념형(ideal type)을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가장 정확한 대조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표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대조표

구 분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패러다임 토대	- 실증주의 - 경험주의	- 자연주의(naturalist) - 해석주의(interpretivism) - 구성주의(constructivist)
존재론	연구자와 분리된 단일의 객관적인 현실: 현실 생활에 부합되는 정적인 추상화(static abstraction)	참여자의 국지적이며, 매일 당면하는 경험으로부터 인식되는 다양한 현실
인식론	연구자는 분리되고(detached) 객관적	연구자는 참여자와 상호작용함
가치 기반	가치중립적이며, 편견이 배제된 자료	연구자와 참여자는 필연적으로 가치 함축적
수사학적 유형	개인적인 목소리: 현재형 시제	비개인적인 목소리: 과거형 시제
인과관계의 설명	법칙정립적(nomothetic) 접근: 정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	개별기술적(idiographic) 접근: 상호 연계된 행위의 창발적(emergent)이고, 전개적인(unfolding) 과정
조사 설계	정적 설계: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범주가 정해짐	생성적(emergent), 즉흥적(improvisational): 연구과정을 통해 범주가 확인됨
분석 과정	연역적: 미리 설정된 가설의 검증	귀납적: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의 해석을 통한 이론화
표본추출 목적	일반화(generalizability): 표본의 대표성 추구	설명력(explanatory power): 변이와 풍부성(richness) 추구
자료와 표본	- 양적 의미부여, 계량화 - 조작화된 변수들 - 통계적이고 표본이 큼 - 통제집단 존재, 외생변수 통제	- 개인적·기술적(descriptive) 기록 - 현장, 노트, 사진, 녹음기, 진술 - 작은 표본 - 비대표성을 띤 표본(편의적 선택)
결론의 기반	재생 가능한(replicable), 양적 자료	자연 발생적인, 매일의 경험으로부터의 증거

자료 : 심준섭(2008: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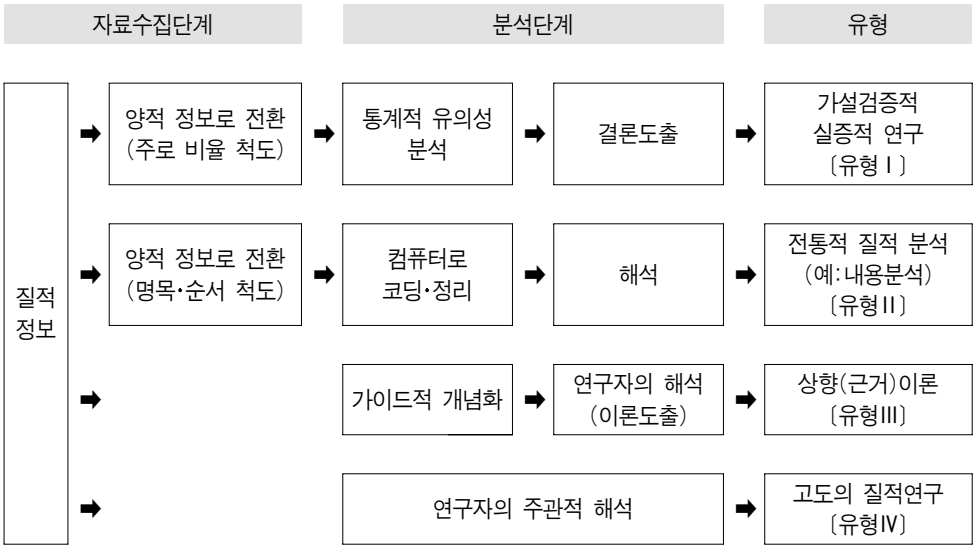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구분하는 방법을 연구단계에 따라 구

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한다. 행정학에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1차 자료나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방식이나 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느냐와 둘째, 이렇게 획득된 정보나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사회과학자가 다루는 모든 현상들은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1회적인 것이고 상이한 것이다. 예컨대 흔히 분석단위로 사용하는 개인도 그 생각이나 경험, 특성이 각각 다르다. 이를 설문지 등으로 측정하여 양적인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단계에서는 통계적 확률이론(stochastic)에 의거하여 당해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가 혹시 표본을 잘못 선택하여 생긴 오류가능성이 얼마인지를 검증하여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가설검증방법이다. 이것만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연구라고 보기도 한다. 물론, 이런 표본추출에 의한 오류가능성 보다는 얻은 자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연구도 있다.

<그림 1> 연구방법의 유형



자료수집과 분석단계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네 가지의 연구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의 [유형 I]이 잘 알려진 양적 연구방법이다.[3] 이미 이론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연역적이다. 그런데, <그림 1>의 [유형 Ⅱ, Ⅲ, Ⅳ] 모두 질적 연구로 알려져 있다. [유형 Ⅱ, Ⅲ, Ⅳ]는 귀납적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유형 Ⅱ]는 일단 자료수집단계에서 개방적인 태도로 문제를 본다는 점에서 질적인 연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수치(즉, 통계)로 판별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질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유형 I]은 물론이고 [유형 II]의 연구도 연구자가 연구대상이란 연구자와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자세를 갖는 경우, 협의의 질적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흔히 알려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이 그것인데, 연설이나 대화에서 특정단어의 출현빈도수를 찾아 통계법(예, 카이자승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과거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소시오메트리(sociometry)를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네트워크 이론이 발달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에 의해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네트워크가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그래픽화하는 것을 넘어서 통계적 유의성 검증기법에 의해(예컨대 두 네트워크의 중심성(centrality)을 유의성여부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검증한다면 질적 연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적 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질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인터뷰록을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뤄왔으나 방대한 분량의 경우 이를 읽고 정리하는 것이 매우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다. 그래서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일단 이런 대화록을 컴퓨터 파일로 만들면 이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복잡하고 고도의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나 집계의 의미만 있다면 아직 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최종 판단을 통계이론에 의존한다면 협의의 질적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4].

3) 이 글은 질적 연구에 초점을 두므로 양적 연구를 [유형 I]이라는 하나로 포괄한다. 사실 양적 연구도 많은 하위범주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 말하는 질적인 질적 연구는 결국 [유형 Ⅲ]과 [유형 Ⅳ]이다.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주요한 결론을 통계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자의 사유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유형 Ⅲ]의 대표적인 것은 근거이론과 행위이론 등이다. 미리 정해진 분석틀이 아니라 철저히 개방적인 태도로 현실을 이해하고 순차적인 귀납적 방법에 의해 이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Michel Crozier(1964)나 Friedberg의 행위이론은 조직연구에서 인터뷰에 의하고, 연구대상 행위자들의 실제 행위내용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인정하고 밝히도록 하는 근거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유형 Ⅳ]는 현상학이나 비판이론과 같이, 통합적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유형 Ⅲ]과 구분된다. 결국 연구자의 주관이 가장 중요한 연구추진력이 되고, 사회는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3. 양적 연구와의 보완 가능성

King, Keohane & Verba(1995)는 사회과학 연구설계론에서 계량적 연구방법론은 연구설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대신에 데이터의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수정하여 유효한 추론을 얻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극적인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본다. 통계적 해결책을 모색하기에 앞서서 더 나은 데이터를 내도록 연구설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더 합당한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질적 연구자들은 양적 연구의 피상성에 대해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70년대부터 Denzin, Lincoln, Guba 등 적지 않은 질적 연구자들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하는 '방법론적 삼각화(triangulation)'를 사회과학에 도입하였으며, Erzberger & Prein(1997)은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결합함으로써 한 마디로 연구 결과들의 수렴(convergence), 보완(complementarity), 또는 불일치(dissonance)를 탐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심준섭 2008).[5] King et.al.(1995)은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

4) 더구나 network 분석에서 사용되는 분석 software를 포함하여 이런 통계적 추론이론에 기초한 유의성 검증 방법은 아직 개발단계를 겪는 중이어서 그 검증결과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약하다.

5)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찬반 양론이 더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병섭(2008) 제11장 내용을 참

들은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이 주류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추론과정 간에 모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성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유형들을 기분으로 할 때, [유형 I]과 다른 유형들 간 결합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것이 좀 더 나은 접근방법인지는 연구문제의 성격과 연구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최병선, 2006).

그러나 국내 질적 연구가로서 조용환(1999a:104~109)은, 한국에서 수행되는 소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결합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어정쩡하게 결합시켜놓은 경우로,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자주 발견되며, 그 원인으로써,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생이나 지도교수가 심사위원들의 몰이해와 반발을 우려하여 과감하게 질적 연구를 추진하지 못하고 우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연구기법상 혼합할 수는 있지만 연구논리상 화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Sydney Tarrow(1995) 역시도 다각화(Triangulation)의 효능은 양적 데이터가 부분적이고 질적 조사가 정치적 환경에 의해 막혀있을 때 특히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Ⅲ. 질적 연구의 유형과 연구전략

우리에게 질적 연구라고 (잘못) 알려진 질적 연구들은 양적 연구와 연구논리상 차이는 없고, 연구기법 상 차이가 날 뿐이다. 진정한 질적 연구는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 장에서는 광의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속하는 [유형 II]과 대비하여 [유형 III]과 [유형 IV]를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진정한 의미의 질적 연구인 후자에 대해 상술한다.

고할 것.

1. 양적인 질적 연구: 〔유형 II〕

개념화되고 조작화된 수치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계량연구의 기법과 달리, [유형 II]는 수치적 자료 이외에 언어, 시각화된 자료, 청각적 자료 등을 사용한다. <그림 1>에서 제시한대로, 가설을 검증하고 사전 범주를 정당화하는 양적 방법론의 연구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거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비계량적인 연구(윤견수, 2005:3) 일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6] 이를 양적인 질적 연구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양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검증해야 하는 기존이론이란 좋은 것'이라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고 있다. 가상적 예로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서 '공공서비스' 정신이 많이 포함되면 될 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때 '공공서비스 정신'을 담은 단어를 찾아내는 내용분석을 하는 것이다. 물론 [유형 III]이나 [유형 IV]의 질적인 질적 연구에서도 연구자의 독자적(질적)인 이론의 수립과정이 중요하기는 해도, 처음에는 이론의 도움 없이, 필드 그 자체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묘사할 것을 주문한다. 그러나, 양적인 질적 연구의 경우에서는 아예 이론을 전면에 세우고, 사례에 있어 이론적 논의가 충분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데이터가 가설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예컨대 흔히 사례연구는 귀납주의자의 주장처럼 한 두 개의 사례연구로부터 이론을 이끌어 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이론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론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사례연구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최병선, 2006)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본고의 시각에서 볼 때,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여 표본수를 늘린 결과 예컨대 정규분포를 전제를 하기 위한 표본(N)이 30이상인 사례연구와 같은 연역적 연구는 아무리 질적내용이 잘 묘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질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즉, 양적인 질적 연구를 옹호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6) 최근 한국에서 질적인 방법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무엇이 '질적'이냐라는 점에서 혼동스럽다. 2007년 4월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서는 같은 이름의 방법론을 표방할지라도 각각 '질적인 질적 연구'와 '양적인 질적 연구'로 다르게 수행하고 있는 두 학자를 발견하게 된다.

크므로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할 가능성이 많으며, 자료에서 가설을 도출하는 세련되지 못한 경험주의((brute empiricism)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충분히 개방되고 유동성 있는 질문(홍영기, 2006)을 가지고 자료와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Creswell, 1998) 진행되는 질적인 질적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결국 진정한 질적 연구는 연구문제에서부터 차이가 있게 된다. 양적인 연구는 사회의 모든 현상이 인과관계라는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고 전제하고 이를 규명하기위해 이론(가설)검증한다. 따라서 어떤 설명대상(종속변수)이나 독립변수의 출현여부나 정도를 어떻게 경험적으로 측정하느냐의 문제와 이들 간에 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통계적 유의성으로 검증하는데 중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질적 연구는 사회현상의 단일성이나 인과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개별 사례(연구대상)의 독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의 측정보다는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왜 일어나는가를 탐구하는데 연구자의 노력이 집중된다. 예컨대 관료부패와 관료의 월급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양적 연구가 해결해야 하는 연구문제라고 한다면, 젊고 청렴한 관료가 어떤 환경과 과정을 통해 부패에 연루되는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같은 관료에 대한 인터뷰의 내용도 이 접근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아무리 계량화되지 않는 자료(인터뷰, 비디오, 문서 등의 질적 자료)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질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같은 질적 연구라고 칭한다고 하더라도 양적인 질적 연구냐, 질적인 질적 연구냐에 따라 방법론의 기저가 이처럼 다르다. 양적인 질적 연구는 방법 자체가 이론부터 설명하고 들어가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론을 전제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 점은 인터뷰 내용의 진실의 신빙성 여부나 인지적 편이(bias)문제를 중요 이슈로 다루는 질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인용문을 사실적 주장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점에서 두 연구방식의 인식의 간극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2. 질적인 질적 연구

1) 연구의 관심과 특성

질적 연구는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을 하는 기본전제와 관심 면에서 양적인 연구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양적인 접근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질적인 연구를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한다. 이를 어느 정도 피해가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유형 Ⅱ]이다. 그러나 [유형 Ⅲ]이나 [유형 Ⅳ]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을 정도의 평행선적인 비판이 생긴다. 그런데 질적인 연구방법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비판들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흔히 질적인 연구를 겨냥한 잘못된 비판(Eight Common Erroneous Critiques)을 보면 다음과 같다.[7]

첫째, 논문작성은 가설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This paper needs to start with a hypothesis). 이것은 가설검증을 연구의 핵심으로 보는 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연구자가 어떤 연구대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궁금증(즉, 넓은 의미의 연구문제)만 가지고 있어도 연구의 개시는 충분한 것이다. 넓은 의미의 연구문제가 있으면 논문작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둘째, 외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This study lacks external validity). 가설검증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자들이 가진 편견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통계적 유의성검증이다. 즉, 일반화를 위해 다른 유사한 집단에 적용가능성을 표본추출 오차라는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질적 연구에서는 개별 연구대상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외적 타당성에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왜 극단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느냐(Why are you focusing on these extreme, negative cases anyway?)라는 비판을 하게 된다. 그래도 대표성이 있는 중간정도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극단적 사례를 통한 이해가 훨씬 설명력이 더 클 수 있다. 더구나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점과 모든 연구대상들은 독특하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셋째, 종속변수가 무엇인가(So what's the dependent variable?)라는 비판을 받게

7) Brower(2008)의 강의내용이지만 일부 항목을 통합 및 보완했음

된다. 질적 연구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면 소위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연구는 가설검증을 지지하는 연구가의 눈에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는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가를 묻는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시간선행, 혹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질적 연구의 관점은 "현재진행형(ongoing)"으로 진리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연구대상은 항상 진화 내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정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넷째, 연구자의 주관성 문제나 오류문제(Author error)가 배제되었느냐의 비판이다. 실증주의에서는 연구자의 무오류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객관적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가진 편견을 그대로 내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므로 항상 연구자로부터 기인하는 오류가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예컨대 GNP와 같은 자료도 사실 그 나라의 자연적 조건, 산업구조, 인적 자원, 분배구조 등에 따라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채 국가간 GNP를 비교하는 가설 검증을 한다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믿는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이상의 연구자가 인터뷰를 하고 코딩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연구자들간의 일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근거이론과 같이 개방코딩, 축코딩을 하는 경우 이들 간 코딩결과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The problem with this coding process is that you can't establish inter-rater reliability about what things mean?). 이 점은 질적인 연구방법의 태생적인 약점으로 연구자간에 상호비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일반화나 객관성의 확보가 연구의 핵심적 목적이 아니므로 치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섯째, 질적 연구는 소수 표본이어야 한다는 믿음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But Helen, you're not a qualitative type; you interviewed 200 people!). 200명이 넘는 사람을 인터뷰하여 질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실 질적인 연구도 다양한 사례를 보고 연구를 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표본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수 표본으로도 훌륭한 연구가 가능하다. 거꾸로 최근 통계기법이 발달하여 소수의 표본의 경우는 정규분포를 가정하

지 않고 통계검증을 하는 양적 연구를 할 수 있다.

여섯째, 질적인 연구는 사적인 비밀보호의 원리를 침해한다(Aren't the death row inmates at risk of having their privacy violated by your research?). 연구의 기본단위가 주로 개인이고, 인터뷰나 관찰 등의 방법으로 이들 연구대상 인간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면밀히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가 연구의 질을 좌우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연구대상인 개인의 사적 생활이 연구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정보보호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질적인 연구에서는 연구윤리를 매우 중시한다. 우선 연구대상으로부터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고, 연구결과물에서는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적인 질적 연구는 양적인 연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론적 입장에 있다. 질적 연구방법론에 의존하는 경우 학술적 목적, 관심, 방법도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양적 연구가 가진 한계 때문에 받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질적인 연구를 한다고 섣불리 선언하면 안 된다. 따라서 논문제목이나 내용목차에 "질적" 혹은 그밖에 질적 연구의 전통에 해당하는 용어가 포함되어있다고 해서 모두 질적 연구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음(조용환, 1999a:92)을 명심해야 한다.

2) 질적 연구방법(유형 Ⅲ)의 특성

Guba & Lincoln(1994:107)에 의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연구를 이끄는 존재론, 인식론, 방법론상에 그 전제가 되는 신념체제(belief system)가 다르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양자의 차이가 단순한 연구방법상의 차이가 아니라, 연구논리상에 그 기저가 다름을 의미한다. 질적인 질적 연구란, 이렇게 연구방법상의 차이 뿐만이 아니라 연구논리상 차이 즉,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른 연구 방식인 것이다.

질적인 질적 연구(즉, [유형 Ⅲ], [유형 Ⅳ])는 연구의 출발 단계에서 전혀 이론(theory)에 근거를 두지 않고 출발한다. 왜 이러한 질적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moments)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natives 즉 연구대상)의 모멘트, 둘째, 연구자(researcher)의 모멘트, 셋째, 독자(audience)의 모멘트이다(Brower, 2007). 현상학적으로 이들은 이미 다

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닫혀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세계(생활세계)(소영진, 2004:10)에 살고 있다. 질적 연구는 바로 이 세 가지 모멘트들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의미'를 이끌어내는 장점이 있다(윤견수, 2005:1). 요컨대, 질적인 질적 연구는 기존 용어나 이론에 기대지 않고, 생활세계(life world)의 상황에 근거를 두고, 그것을 담아 낼 수 있는 이론적 개념(theoretical concept)을 정립(build)해 나간다.[8] 그 일천(一淺)한 수준으로부터 발견된 몇 가지 사실로부터 점점 더 코딩 작업을 고양화시킴으로써 마침내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자료로부터 명명된(label) 개념으로부터 점점 더 넓게 추상화 시켜나가는 상향식(bottom-up) 귀납연구이다.[9]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질적 연구가들이 여전히 자료 수집 이후의 과정을 '분석'으로 통칭하는 관행을 보여 왔다. 이는 다분히 양적 연구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조용환, 1999b:28). 나아가서 양적 연구(혹은 양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물(thing)에 대해 대자(對自)적 관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적용'이라는 용어가 성립 가능하나, 질적인 모멘트에서는, 연구자와 대상 간에 주객의 혹은 주종적 존재 양식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질적인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물과 즉자(卽自)적 관계에 놓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인식의 범위(perceptual field) 내에서 사물이 지각되고, 의미가 해석·재해석되는 것이다.[10]

질적인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Karl Weick의 Mann Gulch 사건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초반부에 화재를 진압해야할 소방관들이 사고(incident) 발생지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허둥지둥 도망을 가게 되고, 급기야 대부분이 참사를 당하면서 파국을 맞는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에세이 형식을 띠는 이 논문에서 저자의 나레이션(narration)은, 자료로부터 도

8) 질적 연구의 한 전통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명명사유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근거이론 전략은 본장 3절에서 자세하게 후술될 것이다.

9) 결국은 기존에 코딩된 개념이 모든 개념을 포착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자 자신이 최종 범주를 독자적으로(즉, 질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 최종범주가 더 이상의 내러티브한 군더더기 없다고 평가가 되면, 만족(saturation)스러운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순간 마침내 "질적인 모멘트의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다.

10) 사물은 존재의 확실성(ontic certainty)을 가지고 그 곳에 있다 (Husserl, 1954, trans., Evanston, 1970)

출된 개념과 개념의 연결[11]을 대담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그런데 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뒤이어 지금까지의 톤을 갑자기 바꾸고, 그러한 대재난이 "왜" 전문소방관들에게 발생하였는지 질문을 던진다. 이에 관해 Mintzberg(1979)가 핵심을 집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는 이론을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연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질적인 모멘트의 등장이다. 저자는 지금까지 방대한 자료로부터 도출한 개념들을 통해 나레이션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대참사의 원인으로서 역할 모호성(role ambiguity)과 역할 갈등(role conflict)을 들고 나온다. 역할의 모호성과 충돌은 급박한 화재상황에서 지휘체계(command structure)상의 혼란으로 이론적 설명이 이끌어내 진다. 마침내 이러한 이론적 구조는 무엇이 어떻게 Mann Gulch현장에서 대형 참사를 낳게 했는지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방식은 기존 이론을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연역주의적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방식이고, 이러한 설명방식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자료로부터 범주화된 개념들이 이론을 구성함에 있어 직결되는 증거(evidence)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구자가 독자적(질적)으로 구축한 이론이 결국 '왜(why)에 대한 대답'(Kaplan, 1964; Merton, 1967; Sutton & Staw, 1995: 378)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질적인 질적 연구는, 개인 조직원이 제도를 사회적으로 습득한 사고방식 즉, 각 개인의 의식에 각인된 사고의 사회적 습관으로 보는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의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서의 현상학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중점을 둬야하는 측면이 타당도와 신뢰도에 중점을 두는 양적인 연구의 경우와 다르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awrence F. Locke, Stephen J. Silverman & Waneen Wyrick Spirduso, 2004:221 ~ 225)

우선 충분한 연구기간(The machinary of time)의 문제이다. 사실 이러한 연구성과물의 질은 연구자가 연구대상 상황에 얼마나 충분한 시간을 보냈는지가 절대적 결정요인이다. 실제로 몇 시간, 몇 일을 보내야 하는지 잘라서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대상에 대해 충분한(만족할만한) 수준의 정보를 얻는데 필요

11) 그러나 저자는 그 구체적 과정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한 시간을 의미한다. 대체로 행정학계에서 질적 연구를 표명한 연구들이 매우 짧은 시간을 소비하여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주관성의 원칙(The machinary of subjectivity)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연구자가 이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객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1차 자료의 획득 후 한 걸음 물러서서 이를 관조해보는 자세 등이 필요하다.

셋째, 부정합성의 원칙(The machinary of What Does Not Fit)이다. 조사결과 연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극단적 예외 등에 대해 양심적으로 처리하고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를 그냥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마치 자신의 결론이 거의 현실에 부합되는 것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실 복잡한 현실세계를 이해하기 쉽게 멋있게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연구를 하려는 유혹이 있는 것이다.

넷째, 관계성의 원칙(The machinary of Relationship)이다. 연구 대상 사람들 간에 오간 대화나 인터뷰 내용에는 이들 간의 인간관계가 내포되어 있음을 항상 주의깊게 감안해야 한다. 연구자와 인터뷰 대상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엄격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연구자와 연구대상간의 상호작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책연구에서는 정책입안부터 집행 시, 그리고 평가 시까지 외부연구자가 대상집단과 긴밀히 상호작용하여 추진해야 한다. 예컨대 조직진단의 경우, 조직개편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이 최종점이면 안 되고, 그 개편안의 실행에도 연구자가 깊이 관여하여 소정의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맥락의 원칙(The machinary of Context)이다. 사회적, 역사적, 물리적 환경을 제대로 묘사하고 분석(설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연구의 결론을 유사한 상황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것은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의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향적이고 순차적 추상화 과정으로서 자료 취급 방법의 대표적인 예인 근거이론의 정책시뮬레이션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 근거이론은 위와 같은 원칙에 충실히 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근거이론을 사용한 정책시뮬레이션(권선필, 2007:34) 연구에서, 예컨대 검

색된 뉴스기사 데이터는 개방코딩(open coding)의 개념들의 소스이다. 이후, 상위 범주인 축코딩(axial coding) 단계에서는 몇 개의 하위 단계의 개념들이 하나의 상위 범주의 소속으로 묶이게 된다. 이때 하나의 개방코딩은 복수의 축코딩에 중복되게 소팅(sorting)이 된다거나 혹은 누락되지 아니하며, 타개념과 상호 배타적으로(즉, 비중복적으로) 일관성있게 범주화가 진행된다. 그러한 작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ATLAS.ti나 MAXqda와 같은 소프트웨어들이다.

하지만, 필드에서 사회적 층(veneer)에 관한 탐사(probes)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 정책시뮬레이션연구에서 보여지는 상호배타적이고 명쾌한 범주화작업에 반해, Brower(2007:161)는 마치 유기체가 진화를 거듭하다 몇 대를 거치면 돌연변이가 나타나듯(i.e., "groupings mutate") 코딩과정을 다수의 초보수준코딩(Child coding)과 수준 있는 코딩(parent coding)으로 연결 짓는 유사범주코딩(grouping code "families")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호배타적이고 명확한 범주화(clean)작업의 원칙을 깨고, 보다 손에 물을 적시는 'dirty hands' 접근으로 풍부한 해석을 이끌어내고, 범주가 더욱더 맥락화 되도록 하고 있다.

현직 교사로서 현장밀접형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대한 정책집행과정을 분석한 남지원(Nam, 2009)의 연구는 한국행정학계에서 시도된 근거이론적 연구의 효시에 가까운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개방코딩, 축코딩을 하여, 교장이 수용하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교사들이 어떠한 태도와 행태로 반응하는가를 6가지 유형으로 도출해 낸 것이다.

3. 질적 연구의 유형별 연구전략

질적 연구를 하는 데에는 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Strauss & Corbin, 1998:11). 첫째, 연구자들의 경험이나 선호로 인하여, 둘째, 연구자들의 기질이 질적 연구 작업의 형태를 수행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셋째, 연구자의 배경 학문 분야가 인류학(anthropology)에서 왔거나, 전통적으로 질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지향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여러 질적 방법론중 어느 방법에 의존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정해질 것이다.

여기서는 과연 질적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로 한다. 질적 연구의 잘 알려진 전통으로써 사례연구(case studies), 문화기술적 방법(ethnography)[12], 근거이론(ground theory), 행위연구(action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ies), 해석학(hermeneutics) 등이 있다(남궁근, 2004). 여기에 구성주의적 접근(constructionism)을 추가하거나(이종규, 2006),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한다(김병섭, 2008). 이하에서는 앞의 유형들에 대해서 연구전략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례연구는 연구대상의 단위(unit)를 결정할 때 적어도 지리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경계가 뚜렷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례의 크기는 천차만별인데, 질적 연구를 할 때에는 대규모의 사례단위를 다루기는 쉽지 않다. 사례연구란 이런 연구대상에 대한 관찰, 인터뷰, 자료분석 등을 통해 어떤 현상을 기록, 보고, 진술하는 것이다. 실험이 자연과학에서 이론의 검증과 발전의 재료이듯이,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이 이론의 검증과 발전의 재료이고, 사례연구는 이 재료의 한 종류이다.[13]

사례연구는 관찰의 보고 및 기록이고, 관찰은 어떤 시각과 관점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때 시각과 관점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포퍼는 관찰은 더욱이 관찰진술이나 실험결과의 진술은 언제나 관찰된 사실의 해석이고, 이론에 비추어본 해석이라고 말한다. 뒤집어 본다면 이론(혹은 가설)이 없으면 어떤 의미 있는 해석도, 관찰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다(최병선, 2006).

모든 연구에서 사례연구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순수 이론적인 연구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행정학 연구는 광의의 사례연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정학, 특히 조직론 분야의 많은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매우 긴 기간에 걸친 관찰이나 참여를 통해 완성된 사례연구들이다. 예컨대 Selznick(1949)은 TVA, Gouldner(1954)은 광산, 그리고 Crozier(1964)는 프랑스 행정조직을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몇 일 혹

12) '민속학적 연구방법론'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13) 이때 사례연구 대상을 정책과정으로 국한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질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다. 양적인 방법으로도 사례연구 가능한데, 정책이념과 사상 혹은 공공철학, 정책의 가치에 대한 기준(합리성, 효율성, 형평성 등), 정책리더십, 다양한 정책분석과 평가방법의 비교와 평가, 정책담당 조직이나 인력, 전문성의 분석과 평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의 시공간적 변화 등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밝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모두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사례연구는 광범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사례를 대상으로하는 질적 연구에 이를 국한한다.

은 일회성 방문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근거한 손쉬운 통계연구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통해 1차 정보나 자료를 축적한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야 비로소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근거없는(ungrounded) 연구가 되는 것이다. 현실로 관찰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자연적·수동적 관찰이 중요하다.[14]

다음으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은 사회집단의 총체적인 문화(holistic culture), 즉 집단구성원들의 행위, 신념, 가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하고자 한다(남궁근, 2004). 이 경우 특정 민족집단, 원시사회, 갱(gang)집단과 같은 특수하위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연구하기 때문에 전술한 사례연구의 범주에 들어간다.

아트킨슨과 해머슬리(Atkinson & Hammersely)에 의하면 문화기술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이종규, 2006).

-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보다는 그 사회현상의 본질을 탐구
- 비구조적(unstructured)인 자료 즉, 폐쇄적인 분석적 범주의 분석을 위하여 코드화하지 않는 자료의 사용
- 적은 수의 사례를 조사하며, 때로 하나의 사례만 상세하게 조사
- 자료의 분석은 인간행동의 의미와 기능의 명백한 해석을 포함하며, 분석의 산물은 부수적인 역할인 수량화된 자료와 통계적인 분석을 표현한 기술과 설명

문화기술적 방법에서는 인간의 행위는 맥락적 성향(contextual orientation)이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의 행위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맥락에서 형성되며 모든 인간사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남궁근,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유형이 행위자들의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며, 활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조건들에 집중한다. 문화기술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사전에 연구가설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연구가설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연구전략을 수시로 수정하는 전형적인 질적 연구방법의 특

14) Sturbucks(2004)는 이를 자연적·수동적 실험(natural and passive experimentation)으로 진술하였다.

징을 가지고 있다(남궁근, 2004).

질적 연구 방법론의 의미 있는 또 다른 전통으로서,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근거이론 접근법은 수집한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이다.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에 기초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 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며, 이론을 개발하려고 시도한다(이종규, 2006). 이렇게 개발된 이론이 근거이론인데, 이는 이론이 특정한 상황에서 도출되었고 그것에 직접 근거(grounded)하기 때문이다. 근거이론의 연구 절차는 매우 엄격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근거이론 방법을 개발한 Glaser와 Strauss는 근거이론 연구의 일곱 가지 주요단계를 제시했다.(남궁근, 2004:317 ~ 320)

첫째, 관심주제 선정를 선정한다. 중요한 것은 근거이론 연구에서는 미리 설정된 가설을 가지고 연구주제를 선택하지 않고 연구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미 시작한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비로소 가설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가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번째로는 연구목적을 결정해야 한다. Glaser와 Strauss는 근거이론의 목적을 초기증거의 정확성 평가, 경험에 기초한 일반론의 확립, 개념의 확인, 기존이론의 검증, 마지막으로 새로운 이론 형성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을 연구목적으로 해도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새로운 이론 형성이다.

세번째로 연구대상 집단을 선택한다. Strauss와 Corbin은 이를 이론적 표본추출의 문제라고 불렀는데, 이는 연구주제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구대상의 크기는 연구목적이나 자연상태의 (연구대상가능) 집단의 크기에 달려 있다. 표본은 미리 몇 개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정도이다. 실제로 표본추출 과정은 한 차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표본을 추가로 선정한다. 필요에 따라 더 필요한 표본을 추가시키는 방법인 눈덩이(snow ball) 만들기와 같은 것이다.

네번째로 실제로 연구자료를 수집한다. 이 때 자료는 인터뷰, 회의록 등 언어로 된 것이 지배적이다. 이를 풍부히 획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거이론 방법이 가진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자료수집, 코딩, 그리고 해석 단계가 별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상호 교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컨대 학위논문 논문프로포절을 할 때는 상술한 3번째 단계까지 하고 가상적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이나마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다.

다섯째, 자료의 개방된 코딩단계이다. 개방형 코딩은 자료분석의 첫 단계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범주를 발견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범주와 대비하여 검증함으로써 연구자는 범주를 종합하고, 단순화시키고, 축소하여 핵심개념으로 정립해 나간다.

여섯째, 자료의 이론적 코딩으로 이론적 또는 선택적 코딩은 자료의 최종적인 구조를 확정하고 개념적 범주들을 중요성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소수의 핵심범주를 제시하고, 수집한 자료 중 이에 적합한 자료를 골라낸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자료가 범주화될 때까지 계속한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연역적 방법이 아닌 귀납적 이론개발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사유(speculation)능력이 연구의 질을 좌우한다. 이와 같이 개발된 근거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이론이 연구주제 및 학문분야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그 이론은 연구 상황의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에게 유용해야 한다. 셋째, 이론은 연구대상 영역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의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행위 연구(action research)를 들 수 있다. Crozier (1964)의 행위연구는 인간의 행위를 체제론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이다.[15] 행위자의 생각보다는 실제로 행위한 결과만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실증적이면서 질적인 연구방법이다(임도빈, 2004;2009). 행위체제론에서는 조직구성원 개인의 행위를 중시하여 실제로 일어난 조직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직인들의 전략과 조직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제약점을 본다. 이를 통하여 일종의 반복적인 행위전략들의 총합으로서 행위체제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현실에 밀접한 근거를 둔 조직분석으로서 개인의 생각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식 조직이해와는 구분

15) 이것은 대상집단의 참여를 통해 조직발전의 대안을 도출하고 이 개혁안을 참여자의 주도하에 집행하며 이 과정에서 외부 연구자는 보조자의 입장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연구(acton research)와는 개념상으로 다르다. 행위체제론적 입장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따라 이를 조직개혁에 적용한다면 행위연구와 접목은 가능하다.

된다. 즉,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인 방법론과는 달리 이런 점에서 행위체제론은 실증적이면서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Brunsson(2002)은 조직의 운영이 '말'이 중심이냐 혹은 행위가 중심이냐에 따라 두 가지로 조직을 유형화한다. 전자는 '정치조직(political organization)으로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연대함으로써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후자는 '행위조직'으로 구체적인 집행(implementation)을 조직의 정당성을 얻는 주요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Brunsson의 행위조직은 Crozier의 행위체제와 개념적으로 다르다.

네 번째로 행정학에 있어서 현상학적 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이 지배적인 한국행정학계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소영진(2004:1)은 먼저 현상학적 방법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의 세계가 사실의 세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고, 나아가 연구의 풍부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현상학적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꿀 필요가 있는 점에 착안하여 방법론적 전략으로 ①보다 폭넓은 접근방법들의 수용 ②국지적 현상 이해와 ③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의 방법" 등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사례조사가 현상학적, 비판이론적 방법론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Hummel, 1991:31-32; 박병식, 1993:26 재인용). 영월군 주사의 행위에 대해 현상학적 분석을 시도한 윤견수(2001)의 연구나, 조직의 환경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행위자들의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 하민철 외(2004)의 연구는 원론적 이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행정학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해석학적 관점은 중요문헌과 서적, 서면 등으로 전달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안영섭, 1996). 해석학은 19세기 성서를 분석했던 독일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후 법규, 고전문학작품 등과 같이 문헌류에 부여된 의미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최근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성서해석에서 출발한 해석학의 응용영역을 확대하여 세속적인 문헌을 해석하려고 시도한다(남궁근, 2004).

해석적 이해에는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의 행동

이나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적 조건에 관련 지식을 뜻하는 경우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과 주장 뒤에 깔려있는 의도(intentions)나 동기(motives)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을 발생시킨 역사적 조건을 밝히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어떤 현상이나 텍스트(text)가 지니는 진리내용(truth contents)을 뜻하는 경우이다. 이는 어떤 주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지식(substantial knowledge)을 뜻하며, 이해의 주제가 갖는 진리 그 자체를 말한다(오명호, 1995).

Gadamer는 이해란 궁극적으로 대화의 구조로 비유될 수 있다고 보면서, 해석적 이해도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주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해의 초점은 마치 대화에서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subject-matter)의 진리성 여부에 모아지게 되며, 텍스트가 주장하는 바를 해석자 자신의 선입견에 비추어 정의하고 검진하게 됨으로써 주제에 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와 해석자의 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합의 또는 '의견의 일치'를 Gadamer는 지평융합(fusion of horizons)으로 부르고 있다. Gadamer의 이러한 견해를 사회과학 연구에 적용하면 사회과학자의 일차적 관심이 되고 있는 행동(action)은 해석학의 텍스트에 해당될 수 있고, 사회적 행동의 분석도 텍스트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주체인 행위자(actor)와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두 지평의 융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오명호, 1995).

4. 좋은 질적 연구결과물의 요건

질적인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양적인 결과물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사자들이 맥락에 맞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질적 연구물이 논문이 되었든 보고서가 되었든 전형적인 표현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론적 배경→가설→표본추출→가설검증→결론' 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설검증적 양적 연구에 비하여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이런 기준으로 질적 연구물을 판단하는 것은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연구는 무형식에, 아무것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질적 방법론 나름대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다. Lawrence F.

Locke, Stephen J. Silverman & Waneen Wyrick Spirduso(2004:214~215)이 주장하는 질적 연구물이 담아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느 것을 연구했는가 연구대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You should find a description of the provenance of the study and what is about). 연구대상의 독특성이 연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정보(자료)가 수집된 맥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You should find a description of the context in which the data were collected). 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나 가치가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과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You should find an account of what was done in that context)

넷째, 실제 획득한 1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You should find presentation of actual data) 비록 지면의 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내용 등 1차 정보가 어느 정도 제공되어야 그 내용이 실감 있게 전달된다. 핵심이론부분만 서술하지 왜 인터뷰 내용을 넣느냐고 지적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속한 용어를 학술논문에 넣는다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16]

다섯째,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을 하나 또는 복수이상의 결론으로 요약해야 한다. (You should find an explicit effort to summarize as well as articulate, one or several conclusion)

이상의 내용은 보통 양적인 연구에서는 익명성이나 주관성의 배제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들이다. 반면 양적 연구에서 중시하는 가설설정이나 표본의 대표성 확보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질적인 접근법을 연구물을 심사할 때 기고자와 심사자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드물지 않은 것이다. 질적인 연구방법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질적 연구물에 대한 심사를 자제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외부 심사자의 기준보다는 연구자 자신의 윤리가 더욱 중요하다.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질적인 연구는 인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연구의 내용을 왜곡시키게 된다. 즉, 자칫 잘못하여 질적인 연구를

16) 물론 독자들의 불쾌감을 일으킬만큼 저속한 표현은 달리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은 질적 연구에서 '사실감'의 전달이 중요하는 것이다.

남용하면 거짓연구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양적연구에 치우친 학계의 풍토를 감안하면 질적 연구방법론의 확산도 중요하지만, 윤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학술풍토에서는 매우 주의를 요한다.

우선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연구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지 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모든 학술연구가 연구자 윤리를 요구하겠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자의 윤리가 중요하다. 이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면담과 관찰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잘 발달된 녹음기구인 MP3기기와 같은 것으로 녹음하는 것은 명백히 연구윤리를 어기는 것이다.

연구진행과정에서는 질적 연구는 풍부하고 세밀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분석 또한 이러한 세밀성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연구에 관련된 사람들의 비밀이나 사생활권을 보호하기가 양적 연구에 비해 어렵게 된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연구자는 이러한 관계를 공식적인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를 지닌 전문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물의 발표단계이다. 연구결과물에서는 전술한대로 생생한 1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과 연구자의 익명성과 정보비밀의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는 상반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더구나 연구자가 고의든 실수든 인터뷰내용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킬 수 있다.[17] 이런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인터뷰나 관찰 대상이었던 본인들에게 연구논문을 읽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자신이 한 얘기를 불리한 것은 삭제토록 요구한다. 그러나 연구자와 대상자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 연구는 매우 노동집약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용 내지 오용될 소지가 많다. 본인이 현장조사를 직접 해야 가장 신뢰할 수 있으므로 다른 연구보조자에게 현장조사를 대신하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17) 이런 맥락의 오류는 기자들이 10분이상 인터뷰한 내용을 자신의 기사에 맞게 10초 이내나 한두 문장으로 선택하여 인용할 때 흔히 생긴다.

그런데 심층면접이나 관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실제로 준수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컨대 실제로는 3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일반화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20명을 인터뷰했다고 과장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 것 같다. 더 나아가서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내거나 문장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행위도 드물지 않다. 사실 연구대상은 현실은 이론과 같이 잘 정리된 것이 아니라 모순이 얽혀있는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전술한 부정합성의 원칙(The machinary of What Does Not Fit)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더 하든지, 이론적 사유(speculation)를 하기 위해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고 성급하게 연구결과를 발표하려 든다. 여기서 정보의 고의적 누락이나 선택의 문제와 왜곡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진정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 일 년에 서로 다른 주제의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는 다산(多産)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실제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표절보다 더 무거운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질적 연구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고,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

Ⅳ. 맺는말

한국행정학계에서 최근에야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아직 그 논의의 수준은 양적인 질적 연구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양적방법론 시각에서 질적인 연구를 평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수준에서는 질적 연구의 진작이 오히려 비윤리적 연구를 양산해 낼 가능성만 높게 할 위험성이 있다.

질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자들 간에 연구대상별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문가보다는 일반가적 학자가 많으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앙행정조직을 전공하는 일련의 학자들이 있을 때, 이들만이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질적 연구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즉, 질적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노동이 집약되는 연구방법론이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학자그룹이 형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는 장기간 소요되는데, 동료 연구자들과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주고 받는 공동작업과정이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절실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질적인 연구물은 질적 연구방법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독점물이 되어서는 안되며, 양적인 연구자와 질적인 연구자로 학계를 이원화할 필요도 없다. 물론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른 한쪽을 비판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주의자들도 질적인 접근법을 담은 연구물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적어도 한국행정학의 토착화를 위해 한국적 상황을 잘 대변하는 개념 및 이론을 만들어내는 연구초기단계에서는 질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행정관련 행위자들의 실제 행위를 연구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은 조직론 연구의 필수적 단계이다(임도빈, 2009). 질적 연구결과 산출된 개념을 계량적 방법으로 측정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그 다음단계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 질적 연구가 활성화 된다는 전제하에 좋은 질적 연구를 활용하고 감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Lawrence F. Locke, Stephen J. Silverman & Waneen Wyrick Spirduso, 2004:216~219)

- 연구자의 특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냈는가? :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봄으로, 연구자의 주관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연구대상(내용)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감안할 수 있도록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소위 '객관적'인 내용과 아닌 것과 다른게 비중을 두어 이해할 수 있다.
- 실제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지칭하는데 얼마나 자주 어떤 단어나 표현을 쓰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즉, 어떤 실제 현상에 대한 명명(naming)이 중요하다. 실제 무엇이 일어났는가, 무엇을 실제로 했는가, 어떻게 그것이 작동했는가, 어디에서 그런 것이 일어났는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예컨대 인터뷰의 실행시 행위가 일어난 시간의 차원에 주의해야 한다. 주요 정보제공자가 제공해주는 정보는 시간차원에서 혼돈적인 것이 많다. 예컨대 공식적인 계획이 마치 일부 실현된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정부의 보고문서에도 보면, 앞으로 할 일, 아

직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마치 실적(實績)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연구과정(연구방법이나 연구설계)에서 다른 대안을 얼마나 폭넓게 검토하여 특정방법을 사용했느냐와 결과의 해석에서 얼마나 개방적으로 대안적 설명들을 충분히 찾았는가가 중요하다.
- 얼마나 생생하게 연구대상의 맥락, 참여자, 연구자, 사건에 대해 묘사했느냐가 중요하다. 양적 연구에서는 설명이나 해석에서 간결하고,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바람직한 조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는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요건이다. 1차 자료에서 얻은 것을 인용문 등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권경득. 2006. “한국행정학보 게재논문의 연구경향 분석: 연구영역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50년≫. 한국행정학회: 1-30

권선필. 2007. “근거이론을 사용한 정책시뮬레이션.”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07년 4월)≫: 45-67

김병섭. 2008. ≪편견과 오류 줄이기 : 조사연구의 논리와 기법≫. 법문사.

남궁근. 2004.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박병식. 1993. “사례조사의 방법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사례조사연구를 대상으로”≪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 25-51.

박홍식. 2006. “학술연구발표의 성향: 내용과 변화추이.” ≪한국행정학 50년≫. 한국행정학회. : 593-616

소영진. 2004. “행정학에 있어서 현상학적 방법의 가능성 탐색.” ≪한국행정학보≫ 38(4): 1-20.

심준섭. 2008. “행정학 연구의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방법론적 다각화(Triangulation):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의 결합.” ≪한국행정연구≫ 17(2): 3-31.

안영섭. 1996. ≪사회과학방법론 총설≫. 법문사.

오명호. 1995. ≪정치학 방법론≫. 박영사.

윤견수. 2001. “약자의 설득전략: 어느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개혁활동에 대한 현상학적 보고서.” ≪한국행정학보≫ 35(1): 143-161

윤견수. 2005. “한국행정학의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과 제안.” ≪한국행정학보≫ 39(2): 1-22.

이종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임도빈. 2004. ≪한국지방조직론≫. 서울:박영사

_____. 2009. “8장 행위론적 접근”, 박종민·정무권 편,≪한국행정연구-도전과과제≫, 서울: 박영사, 193-220

조용환. 1999a.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_____. 1999b.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2): 27-63

최병선. 2006. “정책사례 연구 다시보기: 사례연구에 대한 오해와 편견.” ≪한국정책학회보≫ 40(1): 171-198

하민철·윤견수. 2004. “행위자들의 양면적 상황설정과 딜레마 그리고 제도화: 노사정위원회의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4): .63-85

홍영기. 2006.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의 발전: 국제 비교, 간학문적 담론, 그리고 연구와 현장의 교류 : 주제지정 발표 분과편 ; 교육과정 연구 방법론 :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근거이론 접근 방법의 적용” ≪한국교육과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416-428

Brower, R. S. 2007. “Grounded Analysis: Going Beyond Description to Derive Theory FROM Qualitative Data”,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07. 4월).

_____. 2008. “Eight Common Erroneous Critiques” *Cultural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and Organization FSU Class note.(unpublished)

Brunsson, Nils 2002, *The Organization of Hypocrisy:Talk, Decisions, Actions in Organizations*(2nd ed.), Norway:Abstraxkt/Liber.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Crozier, Michel. 1964. *The bureaucratic phenomenon,*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Erzberger, C., & Prein, G. 1997. “Triangulation: validity and empirically-based hypothesis construction,” *Quality & Quantity*, 31: 141-154

Fine, G. A. 1993. “Ten lies of ethnography: Moral Dilemmas of Field Research”,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22(3): 267-294.

Friedman, M. 1966.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Gary King, Robert O. Keohane & Sidney Verba. 1994. *Designing Social Inquiry :* Scientific Inference in Qualitative Research..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uldner, A. 1954. *Patterns of Industrial Bureaucracy*, Glencoe, Ill.L The Free Press

Granovetter, M.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481-510.

Guba, E. and Lincoln, Y.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105-117. London: Sage.

Henry E. Brady & David Collier. 2004. *Rethinking Social Inquiry : diverse tools, shared standards.*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Hummel, R. P. 1991. "Stories Managers Tell: Why they are as valid as science", *PAR*, 51(1): 31-41.

Husserl, E. 1954.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ale Phänomenologie: Eine Einleitung in die phänomenologische Philosophie.* Translated and edited by David Carr.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Jennifer(김두섭 역). 1999.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출판.

Kaplan, A. 1964. *The Conduct of Inquiry.* New York: Harper & Row.

Lawrence F. Locke, Stephen J. Silverman & Waneen Wyrick Spirduso. 2004. *Reading and Understanding Research* (Second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California.

Merton, R. K. 1967.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Free Press.

Meyer, J. and Rowan, B. 1977.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63.

Minzberg, H. 1979. "An emerging strategy of 'direct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580-589.

Nam, Jiwon, 2009 A Grounded Analysis of Organizational Actors' Strategic Responses to Policy-Korean Primary School Teachers' Responses to Teacher Evaluation System, Ph.D dissertation(unpublished)

Selznick, Philip, *TVA and the Grassroots*,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imon, H. 1957,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Sons, Inc.

Starbuck, William H. 2004, "Why I Stopped Trying to Understand the Real World",

Organizational Studies, 25(7)

Strauss and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Second Edition). Sge Publications.

Sutton & Barry M. Staw. 1995. "What Theory Is No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0(3): 371-384

Sydney Tarrow. 1995. "Bridging the Quantitative the Quantitative-Qualitative divide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471-474

Van Maanen, J. 1979. "Prefa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 520-526.

Weick K. E. 1993. "The collapse of sensemaking in organization: The Mann Gulch Disaste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8(4): 628-652